

※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7건 / 81회			17,732명
2010. 1. 22 ~ 2. 7 소공연장 (30회)	제54회 정기공연 “헨젤과 그레텔”	원작 : 그림형제 연출 : 박정의 * 출연진 * * 출연진 *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 스텝 * 조연출 : 김주연 조명디자인 : 박연용 무대, 소품디자인 : 이주은 의상디자인 : 이상희 안무디자인 : 정아순 작곡 : 조선형 분장디자인 : 손잔숙 사진, 비디오 : 유재형 공연지원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	모든 이에게 ‘따듯함’을 선물할 동화의 나라 작품 <헨젤과 그레텔>은 어떤 공연에 선 어린 남매가 마녀를 만나 용기를 잃 지 않고 탈출에 성공하는 모험의 이야 기로, 어떤 공연에선 계모에 학대를 지 해롭게 이겨내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로, 또 어떤 공연에선 과 자를 너무 좋아하는 어린 남매의 나태 한 생활습관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각색 되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야 기를 살아있는 숲과 숲에 살고 있는 오 래된 전설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하여 아이들의 상상의 세 계가 더욱 풍성해 질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만들어 갈 것 이다. 우 리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설교조의 교 훈이나, 아이들 만화의 단골 메뉴인 모 험담은 없다. 그저 하루 밤 숲으로 여 행을 떠난 남매가 숲의 여러 재미난 친 구들 만나고 돌아오는 어린 시절의 잊 을 수 없는 경험과 같은 이야기다. <줄거리> “신기하지? 착한 사람은 죽어서 별이 된다는 것이.... 해와 달, 별은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은 비와 눈을 가져오고 비와 눈은 땅을 적 시고 땅은 온갖 생명을 만들어 내고... 어쩐지 온 세상이 하나인 것 같아...” 어느 날인가부터 눈이 내리지 않아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한 마을에 힘들지만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헨젤과 그레텔... 내리지 않는 눈을 기다리며 헨젤의 가족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숲의 요정 님께 기원을 드린다. 그러나 피곤과 굶주림에 지친 엄마가 쓰 러지고 헨젤과 그레텔은 요정을 찾아서 무섭고 두렵지만 엄마, 아빠를 위해 마 녀가 나타난다는 깊고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6,764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0. 2. 18(목) 힘찬 노인학교			<p>권선징악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구전동화인 「홍부와 놀부」로 인천시립극단 특유의 재구성을 통하여 만든 작품이다. 마음씨 착한 홍부와 못된 놀부 그리고 제비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립고,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p> <p>원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립극단 단원들과 손경희 연출의 호흡으로 재구성된 이 작품은 탄탄한 연기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재구성했으며 웃음과 감동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한다.</p>	200명
2010. 2. 19(금) 부평 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공연 “홍이야 놀이야”	<p>연출 : 손경희</p> <p>* 출연진 *</p> <p>조윤경 김세경 송정화 강성숙 정순미 서창희</p> <p>* 스텝 *</p> <p>기획 : 김화산 이윅희 이돈형</p>	<p><줄거리></p> <p>옛날 옛적에 홍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이 좋게 살라고 지어준 집에서 형인 놀부가 동생 홍부를 쫓아내 버립니다. 착한 홍부는 갑자기 쫓겨 나서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홍부네 가족을 몰아낸 조용한 놀부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동지를 틀자 놀부는 제비집을 부숴버립니다. 제비 가족은 허름하지만 맘씨 좋은 홍부네 집에서 동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한밤중에 구렁이가 알을 노리고 덤비자 제비 부부는 그것을 막으려다 아빠 제비는 잡아먹히고 엄마 제비는 다리가 부러진 위기 상황!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홍부가 구렁이를 물리칩니다. 홍부는 엄마 제비를 치료하고 앞에서 깨어난 아기 제비를 실수를 거듭하면서 정성껏 키웁니다. 건강해진 엄마 제비는 아기 제비와 함께 제비나라로 돌아가 임금님께 저간의 사정을 보고합니다. 감동한 임금님이 상으로 박씨를 내리자 제비 가족이 홍부에게 전달합니다. 박씨는 심자마자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박이 열립니다. 그 박을 타자 <먹는 사람은 모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랑의 떡> 이 나옵니다. 착한 홍부는 이웃은 물론 형님께에도 나누어 주고 평생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p>	120명
2010. 2. 25(목) 영락원				10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0. 5. 7 ~ 9 대공연장 (5회)</p>	<p>제55회 정기공연 악극 “아씨”</p>	<p>원작 : 이철향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성원(객원) 오정해(객원)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김태범 송주희 김희원(비상임)</p> <p>* 스텝 *</p> <p>안무 : 박상규 노래지도 : 임병욱 조명디자인 : 민경수 음향디자인 : 김현산 의상디자인 : 정경희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디자인 : 김윤석 특수효과 : 성범재 음악, 반주 : 실버악단 사진 : 유재형 비디오 : 공정태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한 평생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p> <p>70년대 안방극장을 눈물로 수놓았던 기념비적인 드라마 <아씨>를 리메이크한 이번 악극 “아씨”는 외유내강한 전통의 여인상을 재현해 그 속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p> <p><줄거리></p> <p>엄격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 기순은 어른들의 뜻에 따라 출가하고 여필종부 삼중지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한국의 전통여성이다. 그러나, 남편이 서울로 유학을 떠나고 두 집 살림을 시작한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할머니로 인해 고난이 시작되는데, 유학 간 남편의 외도는 새아씨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p> <p>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 시누이의 구박과 괴롭힘을 참아내던 아씨의 자리는 남편 애인의 임신으로 위태로워지고 급기야는 소박을 맞는데, 엄격한 친정아버지는 쫓겨 난 딸을 그대로 내치고 만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하인과 서울살이를 시작한 아씨. 남편이 밖에서 낳아 데려온 아들을 혼자 맡아 기르는 아씨에게 아들의 생모와 낳은 정과 기른 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겪으며 인고의 시간은 계속된다. 오랜 시간 아씨를 흠모하며 어려울 때마다 남몰래 도움을 주었던 소작인의 아들 수만의 딸이 아씨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는 운명의 폭풍이 지나가고, 아씨에게 가혹하기만 했던 남편을 기다리는 아씨, 그러나 그녀는 이씨 가문의 며느리로 다른 가족 모두를 보살펴야 하는 집안의 기둥이 돼 있었다.</p>	<p>2,692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0. 5. 17(월) 인천보육원	찾아가는 공연 “홍이야 놀이야”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윤경 김세경 송정화 강성숙 정순미 서창희 * 스텝 * 기획 : 김화산 이윅희 이돈형	권선징악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구전동화인 「홍부와 놀부」로 인천시립극단 특유의 재구성을 통하여 만든 작품이다. 마음씨 착한 홍부와 못된 놀부 그리고 제비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립고,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원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립극단 단원들과 손경희 연출의 호흡으로 재구성 된 이 작품은 탄탄한 연기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재구성 했으며 웃음과 감동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줄거리> 옛날 옛적에 홍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이 좋게 살라고 지어준 집에서 형인 놀부가 동생 홍부를 쫓아내 버립니다. 착한 홍부는 갑자기 쫓겨 나서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홍부네 가족을 몰아낸 조용한 놀부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동지를 틀자 놀부는 제비집을 부숴버립니다. 제비 가족은 허름하지만 맘씨 좋은 홍부네 집에서 동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한밤중에 구렁이가 알을 노리고 덤비자 제비 부부는 그것을 막으려다 아빠 제비는 잡아먹히고 엄마 제비는 다리가 부러진 위기 상황!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홍부가 구렁이를 물리칩니다. 홍부는 엄마 제비를 치료하고 앞에서 깨어난 아기 제비를 실수를 거듭하면서 정성껏 키웁니다. 건강해진 엄마 제비는 아기 제비와 함께 제비 나라로 돌아가 임금님께 저간의 사정을 보고합니다. 감동한 임금님이 상으로 박씨를 내리자 제비 가족이 홍부에게 전달합니다. 박씨는 심자마자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박이 열립니다. 그 박을 타자 <먹는 사람은 모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랑의 떡> 이 나옵니다. 착한 홍부는 이웃은 물론 형님에게도 나누어 주고 평생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20명
2010. 5. 19(수) 혜광학교				180명
2010. 5. 25(화) 예림학교				150명
2010. 5. 26 ~ 27 장수초등학교 (2회)				350명
2010. 5. 28(금) 장도초등학교				400명
2010. 5. 29(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홍이야 놀이야”	400명		
2010. 6. 1(화) 고잔고등학교	찾아가는 공연 “홍이야 놀이야”			400명
2010. 6. 4(금) 갈산 행복의 집				7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0. 7. 23 ~ 8. 1 야외공연장 (9회)</p>	<p>제56회 정기공연 뮤지컬 “사랑과 광증”</p>	<p>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 플레처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이애린(객원)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김태범 송주희 김희원(비상임)</p> <p>* 스템 *</p> <p>작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음악감독 : 한철희 음악편집 : 이웅 안무 : 이지영 조명디자인 : 박희철 음향디자인 : 김현산 무대디자인 : 박재범 의상디자인 : 정경희 분장디자인 : 손진숙 특수효과 : 성범재 사진 : 유재형 비디오 : 공종태 무대장치 : 이강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모차르트 음악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한여름 밤을 매료시킨다!</p> <p><사랑과 광증>은 연극과 음악과 춤이 가미된 로맨틱한 코메디 뮤지컬이다. 사랑을 위해 우정까지도 버려야했던 두 젊은이들의 사랑과 짝사랑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광기가, 흥미롭고 유쾌하며 환상적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 시대와 상황과 형식을 뛰어 넘어 무더운 한 여름 밤에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관극하기에 적합한 이 작품은 제2의 <한 여름 밤의 꿈>이라 할 만큼 사랑과 열정의 로맨스가 뛰어난 작품이다.</p> <p><줄거리></p> <p>무대는 어느 시대의 어떤 곳. 결혼식을 올리려는 왕과 여왕 앞으로 세 여인이 나타나 전쟁터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청원한다. 마음의 동요를 받은 왕비와 처제의 설득에, 왕은 적국의 정벌에 나선다. 한편 적국에서는 왕자 나모와 아사달에게 고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지만 포로가 되어 탐에 유배된다. 감옥 창문을 지나가는 아밀리에게 두 사람은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은 균열이 생긴다. 그 후 아사달은 용서를 받아, 일평생 그 나라에 돌아오지 않음을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러나 아밀리에게 반한 아사달은 변장을 하여 신분을 속이고 무술대회에 나가 결국 우승을 한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아밀리의 경호원이 된다.</p> <p>한편 나모는 그를 사랑하는 교도관의 딸 필너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되고, 숲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모를 빼내는 중죄를 진 필너는 맺지 못할 사랑에 미쳐버린다. 몸을 숨긴 숲에서 아사달과 우연히 재회하는 나모. 둘은 결투 중에 사냥을 하고 있던 왕에게 발각되고, 격노한 왕은 승자는 아밀리와 결혼을 하고 패자는 처형을 하게 됨을 조건으로 결투를 명한다. 나모와 아사달의 결투에서 승리한 아사달은 나모가 단두대에 오른 순간 말에 떨어지게 되고, 유언으로 친구인 나모에게 아밀리와 결혼해줄 것을 부탁하며 숨을 거둔다.</p>	<p>1,151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0. 8. 4 ~ 6 거창국제연극제 축제극장 (3회)</p>	<p>거창국제연극제 초청 뮤지컬 “사랑과 광증”</p>	<p>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 플레처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이애린(객원)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김태범 송주희 김희원(비상임)</p> <p>* 스텝 *</p> <p>작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음악감독 : 한설희 음악편집 : 이웅 안무 : 이지영 조명디자인 : 박희철 음향디자인 : 김현산 무대디자인 : 박재범 의상디자인 : 정경희 분장디자인 : 손진숙 특수효과 : 성범재 사진 : 유재형 비디오 : 공종태 무대장치 : 이강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모차르트 음악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한여름 밤을 매료시킨다!</p> <p><사랑과 광증>은 연극과 음악과 춤이 가미된 로맨틱한 코메디 뮤지컬이다. 사랑을 위해 우정까지도 버려야했던 두 젊은이들의 사랑과 짝사랑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광기가, 흥미롭고 유쾌하며 환상적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 시대와 상황과 형식을 뛰어 넘어 무더운 한 여름 밤에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관극하기에 적합한 이 작품은 제2의 <한 여름 밤의 꿈>이라 할 만큼 사랑과 열정의 로맨스가 뛰어난 작품이다.</p> <p><줄거리></p> <p>무대는 어느 시대의 어떤 곳. 결혼식을 올리려는 왕과 여왕 앞으로 세 여인이 나타나 전쟁터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청원한다. 마음의 동요를 받은 왕비와 처제의 설득에, 왕은 적국의 정벌에 나선다. 한편 적국에서는 왕자 나모와 아사달에게 고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지만 포로가 되어 탐에 유쾌된다. 감옥 창문을 지나가는 아밀리에게 두 사람은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은 균열이 생긴다. 그 후 아사달은 용서를 받아, 일평생 그 나라에 돌아오지 않음을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러나 아밀리에게 반한 아사달은 변장을 하여 신분을 속이고 무술대회에 나가 결국 우승을 한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아밀리의 경호원이 된다.</p> <p>한편 나모는 그를 사랑하는 교도관의 딸 필녀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되고, 숲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모를 빼내는 중죄를 진 필녀는 맺지 못할 사랑에 미쳐버린다. 몸을 숨긴 숲에서 아사달과 우연히 재회하는 나모. 둘은 결투 중에 사냥을 하고 있던 왕에게 발각되고, 격노한 왕은 승자는 아밀리와 결혼을 하고 패자는 처형을 하게 됨을 조건으로 결투를 명한다. 나모와 아사달의 결투에서 승리한 아사달은 나모가 단두대에 오른 순간 말에 떨어지게 되고, 유언으로 친구인 나모에게 아밀리와 결혼해줄 것을 부탁하며 숨을 거둔다.</p>	<p>1,25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0. 9. 5(일) 해피홈 보육원	찾아가는 공연 “홍이야 놀이야”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윤경 김세경 송정화 강성숙 정순미 서창희 * 스텝 *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권선징악을 알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구전동화인 「홍부와 놀부」로 인천시립극단 특유의 재구성을 통하여 만든 작품이다. 마음씨 착한 홍부와 못된 놀부 그리고 제비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해 요즘같이 사람간의 정이 그립고, 사랑이 부족한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며, 가족애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천 시민들에게 따스한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100명
2010. 9. 7(화) 실버타운			원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립극단 단원들과 손경희 연출의 호흡으로 재구성된 이 작품은 탄탄한 연기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재구성했으며 웃음과 감동을 가득 담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따스함을 전달하고자 한다.	80명
2010. 9. 12(일) 남인천 성결교회			<줄거리>	150명
2010. 9. 12(일) 장기 늘봄 사랑터			옛날 옛적에 홍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이 좋게 살라고 지어준 집에서 형인 놀부가 동생 홍부를 쫓아내 버립니다. 착한 홍부는 갑자기 쫓겨 나서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홍부네 가족을 몰아낸 조용한 놀부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동지를 틀자 놀부는 제비집을 부숴버립니다. 제비 가족은 허름하지만 맘씨 좋은 홍부네 집에서 동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한밤중에 구렁이가 알을 노리고 덤비자 제비 부부는 그것을 막으려다 아빠 제비는 잡아먹히고 엄마 제비는 다리가 부러진 위기 상황!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홍부가 구렁이를 물리칩니다. 홍부는 엄마 제비를 치료하고 알에서 깨어난 아기 제비를 실수를 거듭하면서 정성껏 키웁니다. 건강해진 엄마 제비는 아기 제비와 함께 제비 나라로 돌아가 임금님께 저간의 사정을 보고합니다. 감동한 임금님이 상으로 박씨를 내리자 제비 가족이 홍부에게 전달합니다. 박씨는 심자마자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박이 열립니다. 그 박을 타자 <먹는 사람은 모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사랑의 떡> 이 나옵니다. 착한 홍부는 이웃은 물론 형님께에도 나누어 주고 평생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놀부도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70명
2010. 9. 16(목) 마리실버힐			80명	
2010. 9. 17(금) 제2시립노인병원			80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0. 10. 10(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p>	<p>제1회 한국 국공립극단 연극 페스티벌 “사랑과 죽음의 유희”</p>	<p>작 : 로맹롤랑 번역 : 유호식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p> <p>* 스텝 *</p> <p>작곡·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안무 : 구경숙 무대디자인 : 최상철 의상디자인 : 정경희 조명디자인 : 최형오 분장디자인 : 손진숙 소품디자인 : 임은진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돈형</p>	<p>모차르트 음악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한여름 밤을 매료시킨다!</p> <p><사랑과 광증>은 연극과 음악과 춤이 가미된 로맨틱한 코메디 뮤지컬이다. 사랑을 위해 우정까지도 버려야했던 두 젊은이들의 사랑과 짝사랑에 몸부림 치는 한 여인의 광기가, 흥미롭고 유쾌 하며 환상적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만나게 된다. 시대와 상황과 형식을 뛰어 넘어 무더운 한 여름 밤에 연인들과 또는 가 족들과 관극하기에 적합한 이 작품은 제2의 <한 여름 밤의 꿈>이라 할 만큼 사랑과 열정의 로맨스가 뛰어난 작품 이다.</p> <p><줄거리></p> <p>무대는 어느 시대의 어떤 곳. 결혼식 을 올리려는 왕과 여왕 앞으로 세 여 인이 나타나 전쟁터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청원한다. 마음 의 동요를 받은 왕비와 처제의 설득에, 왕은 적국의 정벌에 나선다. 한편 적국 에서는 왕자 나모와 아사달에게 고국 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지만 포로가 되어 탐에 유배된다. 감옥 창밀 을 지나가는 아밀리에게 두 사람은 동 시에 사랑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은 균열이 생긴다. 그 후 아 사달은 용서를 받아, 일평생 그 나라에 돌아오지 않음을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러나 아밀리에게 반한 아사달은 변 장을 하여 신분을 속이고 무술대회에 나가 결국 우승을 한다. 그래서 그 보 상으로 아밀리의 경호원이 된다. 한편 나모는 그를 사랑하는 교도관의 딸 필녀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되고, 숲 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모 를 빼내는 중죄를 진 필녀는 맺지 못 할 사랑에 미쳐버린다. 몸을 숨긴 숲에 서 아사달과 우연히 재회하는 나모. 둘 은 결투 중에 사냥을 하고 있던 왕에 게 발각되고, 격노한 왕은 승자는 아밀 리와 결혼을 하고 패자는 처형을 하게 됨을 조건으로 결투를 명한다. 나모와 아사달의 결투에서 승리한 아사달은 나모가 단두대에 오른 순간 말에 떨어 지게 되고, 유언으로 친구인 나모에게 아밀리와 결혼해줄 것을 부탁하며 숨 을 거둔다.</p>	<p>70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0. 12. 3 ~ 12 소공연장 (11회)</p>	<p>제57회 정기공연 “맥베스”</p>	<p>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 신정옥 연출 : 이종훈</p> <p>* 출연진 *</p> <p>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태범 김문정 최지연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이예찬(객원)</p> <p>* 스텝 *</p> <p>작곡·편곡 : 미하엘 슈타우다허 무대디자인 : 이태섭 의상디자인 : 정경희 조명디자인 : 최형오 분장디자인 : 손진숙 사진, 비디오 : 유재형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유은미 이든형</p>	<p>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여- 맥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p> <p>1600~1606년에 씌어진 4편의 비극이 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서 도 최고 걸작이다. <맥베스>는 셰익스 피어의 비극 중에 가장 마지막 작품이 며, 가장 짧은 작품이기도 하다. 군더더 기 없는 탄탄한 짜임새와 전편에 일관 되게 흐르는 긴장은 다른 <맥베스>의 특징이다.</p> <p><맥베스>는 시적 언어로 표현한 아주 간결한 대사가 백미로 꼽힌다. 고도로 응축된 시적 표현은 각 인물들의 끔찍 스런 영혼의 내면을 비춰내는 데 결정 적 역할을 하며, 동시에 주인공의 성격 과 행동을 적절하게 드러낸다.</p> <p>권력의 야망에 이끌려 왕위를 찬탈하 고 끝내는 비극적 결말을 불러오는 과 정을 단순한 정치적 욕망의 차원이 아 닌 인간의 양심과 영혼의 파멸로 그려 낸다. 절호의 기회에서 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갖기로 하는 순간 맥베스는 이 미 운명처럼 자기파멸의 피해자가 된 다. 따라서 맥베스는 권력을 향한 가해 자이면서 권력에 의한 피해자이다.</p> <p><줄거리></p> <p>스코틀랜드의 무장(武將) 맥베스는 마 녀의 예언에 현혹되어 기승을 부리는 부인과 공모하여 자기의 거성(居城)을 방문한 국왕 던컨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그 자손이 장차 왕자가 된다는 예언을 믿고, 친구 벵코 부자 (父子)의 암살을 계획하지만 그의 아들 은 도망친다. 맥베스의 폭정을 저주하는 소리가 전국에 퍼지고 반란이 일어나자 맥베스는 다시 마녀를 찾아가 예언해줄 것을 요구한다. 마녀는 버넌의 숲이 그 의 성을 공격하지 않는 한 안전하며, 여 성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결코 그를 패망시킬 수 없다고 예언하였다.</p> <p>그러나 던컨왕의 유아(遺兒) 맬컴을 추대한 맥더프가 인솔한 군대는 버넌 숲 속의 나뭇가지를 베어 들고 몸을 감 추면서 맥베스의 성(城)을 공격한다. 이 때 부인이 미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 고 낙망하던 맥베스는 최후의 용기를 내 어 싸우지만 맥더프가 어머니의 배를 절개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자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대결 끝에 맥 더프에게 살해된다.</p>	<p>1,488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0. 12. 27(월) 영종중학교	찾아가는 공연 “그녀들만의 공소시효”	작 : 김란이 연출 : 손경희 * 출연진 * 조윤경 김문정 강주희 최지연 * 스텝 * 기획 : 김화산 이옥희 이돈형	평화로운 일상에 던져진 살인 사건이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묻혀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사투리로 구수하게 풀어낸다.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는 적어도 이웃이 누군지는 알고 지내는 조용한 주택가가 그 배경이다.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여러 가지 편견들을 코믹 스틸러로 표현코자한다. 모든 대사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연변 사투리까지 구성해서 우리말의 풍성한 재미로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코자 한다.	160명
2010. 12. 28(화) 장기 늘봄 사랑터			57명	
2010. 12. 29(수)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			60명	
2010. 12. 30(목) 부평구 치매보호센터			60명	